

한국의례복식의 기호학적 분석(1) - 조선시대 혼례복식을 중심으로 -

나 수 입

상명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A Semiotic Approach to Korean Ceremonial Dress - Focusing on Wedding Dress in Choson Dynasty -

Soo-Im Rha

Dept. of Industrial Fine Arts, Assistant Professor of Sangmyung University

目 次

Abstract	1. 혼례복식의 랑그와 빠를
I. 서 론	2. 혼례복식의 기표와 기의
II. 이론적 배경	3. 혼례복식의 계열체와 통합체
1. 연구방법으로서의 문화기호론	4. 혼례복식의 형태소
2. 기호학의 주요 개념	IV. 결 론
III. 조선시대 혼례복식의 기호학적 구조분석	참고문헌

Abstract

This article aims, by analysing structurally the codification of dress sign in Korean society, the signifying system of the codes and their message communicated, to make clear a signifying structure that would be codified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abstract concepts and real condition of dress. I used the semiotic theory of Ferdinand de Saussure's conception on structuralismly the codification, cultural semiology of Roland Barthes and Myung-Sook Han's formula of dress structure as tools to analyse my objective of wedding dress of folks in Choson Dynasty, which has been successive our tra-

본 논문은 상명대학교 '96학년도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ditional Korean wedding dress.

My results of the study are :

The procedure of wedding ceremony in Choson Dynasty was presented in texts like Juja-garye, Sarye-peonram and Kukjo-orye, its dress system has been more emphasized on langue, an aspect of social system, than parole, one of individual realization. In addition, the meanings of marriage such as "Oneness of bride and bridegroom", "Mixture of two sexes", "Blessing of good luck", were included in the signifieds like the style, pattern and color of the wedding dress, and especially, pattern and color, the articulated morphemes, was emphasized, when we combined terms of dress in Choson Dynasty with syntagmatic, regarding their list as paradigmatic, it will signify a wedding dress, and according to combining ways, it may be divided as sign of dresses of bride and bridegroom by sex or king, gentry and common people by class.

$$\text{Wedding Dress in Choson Dynasty} = \left[\left\{ \text{OD} \times \left(\frac{\text{U}}{\text{D}} \times \frac{\text{u}}{\text{d}} \right) \right\} + \text{AC} \cdot \text{H} \cdot \text{FW} \right]$$

I. 서 론

복식은 추상적인 개념과 복잡한 사회의 구조를 유사한 복식의 색과 형태로 바꾸어서 표시하여 언어만으로는 전하기 어려운 난해한 개념과 인간사회의 구성을 구체적인 시각적 이미지와 연결하는 표현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에 대하여 S. B. Kaiser¹⁾, M. L. Rosencranz²⁾ 등은 복식을 하나의 기호로 보았으며 복식사회 심리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복식커뮤니케이션의 메커니즘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기호학은 인간이 다루는 모든 상징체의 구조와 그것이 체현하는 사상성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연구이다. 기호학의 범위 중에서도 복식은 가장 밀접하고 무의식적인 기호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³⁾

현재 우리나라의 복식현상을 보면 일상복은 복식의 국제화에 의해서 서양복을 착용하고 있

1) Kaiser, Susan 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 in Context.*,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90).

2) Rosencranz, Mary L. *Clothing Concepts.*,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72).

3) Petr Bogatyrev, "Costume as a sign," *From the Functions of Folk costume in Moravian Solvaki.*, Mouton, The Hague and paris, (1971).

Catherine A Cerny., "Semiotics: A perspective on Dress and Identity", University of Rhode Island *ACPTC Conference Workshop Social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Dress.* (1989).

Fred Davis,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Chicago & London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한명숙, "한국복식현상의 구조적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이성희, "군복식의 기호학적 분석,"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4).

이은주, "의례복식의 상징작용에 관한 연구방법론과 그 적용," 한국의류학회 「한국의류학회지」 19권2호 (1995).

으나 민족복인 한복은 여전히 의례복에서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의례복식은 의례적인 특별한 날 의례규정에 의해서 착용되기 때문에 일상복식과는 다른 의례적인 형식이 갖추어져야 하며 의식의 내용에 의해 제정된 복식을 착용해야 한다. 의례에서 복식은 단순히 입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의 형식의 매개체로 이용되었으며 그 매개체에 내용을 부여하기 위한 상징적인 표시였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출발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통혼례복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조선시대의 혼례복을 조선시대 민가의 혼례절차를 다룬 禮書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복식기호들의 코드화 및 그 코드들의 의미체계와 전달하는 메시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서 비언어적 의사전달의 변인으로서 복식의 추상적 개념들이 복식실체와 관련되어 기호화 되는 의미체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분석개념은 F. de Saussure의 구조주의 개념의 기호학이론과 R. Barthes의 문화기호론 및 한명숙의 복식구조학을 이용하였다.

본 논문은 한 사회에서 문화적 기호로서 존재하는 의례복식을 기호학적 개념으로 분석함으로써 복식의 기호학적 체계정립을 위한 일연구로서 의의를 두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연구방법으로서의 문화기호론

구조언어학에서 출발한 구조주의는 인간문화현상에 있어서의 구조에 대한 인지와 그 기술에 관련된 세계에 대한 사고양식이라 할 수 있겠다. 구조주의는 레비스트로스에 의하여 언어 외의 인간의 여러 가지 문화요소와 사회생활의 여러 가지 양상이 구조언어학의 개념과 방법으로 고찰할 수 있다는 명제가 제기되었다. 인간의 문화현상 곧 문화적 행동, 신화, 의식, 의례, 친족관계, 혼인관습 및 토맹체계 등의 여러 가지 현상의 구성요소가 언어의 음운구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소쉬르에 의해 정의된 구조주의적 언어학의 기본적인 개념들은 기호학적으로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들이다.

기호학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연구이다. 기호학은 이 같은 기호들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과 그것의 사용을 지배하는 규칙들을 연구한다. 즉 넓은 의미에서의 기호학은 모든 현상을 기호로 보고 그 기호의 표면에 나타난 것(기표; signifier)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의미(의의; signified)와 양자간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현상의 심층에 내재하고 있는 행위자의 주도적인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고자 하는 문화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호학의 성격은 외모의 시각적인 맥락과 의사전달 과정에서 외모를 분석하는 도구로써 유용하다.

복식은 처음 사용될 때에는 자의적이거나 사회제도속에서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진 고정된 형태가 되면 관습이 된다. 특히 통과예에 이용되는 복식은 다른 차원의 시·공간을 출현시키기 위해 일상복과는 다른 형태이다. 이러한 복식은 습관 혹은 전통으로 정착된 확고해진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고 하나의 기호로서 작용되므로 기호학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2. 기호학의 주요 개념

1) 랑그와 빠롤

소쉬르⁴⁾는 기호학을 추상적인 언어 체계(language)로서의 랑그(langue)측면과 개개인의 발화 행위(speech)로서의 빠롤(parole)이라는 두 가지의 측면으로 논의하였다. 이때 랑그는 한 언어의 문법에 해당되는 기본 구조이며 빠롤은 그것을 토대로 실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운용되는 담화 또는 해당되는 실제 상황을 의미한다. 이를 문화차원으로 끌어 올린 바르트는 랑그는 사회제도이고 가치들의 체계이며 개인은 그 스스로 그것을 만들 수도 수정할 수도 없고, 의사 소통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수용해야만 하는 집단적인 계약이라고 해석하였다.

반면에 빠롤은 선택과 현실과의 개별적 행동으로 말하는 주체가 개인적 생각을 표현하려고 랑그의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담화(discourse)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랑그는 이러한 개별 메시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수단, 즉 코드(Code)이며 이것은 빠롤을 조건지우며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강제, 지시, 담화, 이미지, 형식적 기술, 수사학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기표와 기의

소쉬르⁵⁾는 기호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며 기호 표현과 기호 내용의 결합체로서 자의성(恣意性)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어떤 대상을 의미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기호들이 어떤 대상을 대신할 수 있게 되는 기호의 내적 관계를 소쉬르는 기표와 기의로 구분하였다.

기표란, 기호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로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지각되는 기호의 이미지, 즉 의미의 물질적 운반체로 현실적 차원의 것이다. 기의는 실제의 의미, 즉 사람들이 어떤 기표에 대해 지니고 있는 추상적, 정신적 개념이다.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순전히 자의적이어서 그것을 사회와의 약속으로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⁶⁾

3) 의미화

외연적 의미(Denotation)는 사전에서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표현의 일차적 내용을 말하며 내포적 의미(Connotation) 즉 2차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부터 파생된 의미이며 외연적 의미와 같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기호의 문자상의 의미를 넘어서서 인간의 주관적 개입에 의해서 그 의미를 확대시키거나 부각시킨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외연적 의미의 저변에 깔린 관습이나 규약, 인간의 주관적 개입에 의해서 해석되는 심층적 의미로 기호들이 사용자의 느낌, 감정, 그들 문화의 가치와 만났을 때 발생하는 상호작용인 것이다.

4) 계열체와 통합체

계열적 구조는 서로 다른 실체를 가지면서도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는 단위들의 집합, 즉 선

4) Ferdinand de Saussure, 「일반언어학강의」 오원교 역, (서울:형설출판사, 1973), pp. 65-70.

5) F. de Saussure, 오원교역, 「일반 언어학 강의」, pp. 60-63.

6) R. Barthes, *Elements of Semiology*, trans by A. Lavers and S. Colims, (New York : Hill and Wang, 1980), pp. 42-43.

택이 일어나는 기호들의 균을 말한다.” 통합적 관계는 이러한 계열체에서 선택된 단위들이 다른 단위들과 결합되어지는 관계를 말한다. 통합체에서 중요한 것은 단위들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 결합되는 규칙이나 관습이다.

통합적 구조는 계열적으로 선택된 구조들의 결합적 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문장의 한 구성요소가 의미를 획득하기 위하여 전후에 나타나는 다른 구성요소들과 결합되는 관계 즉, 각 요소가 어떤 문맥속에서 서로 일정한 자리에 위치하면서 연쇄를 이루고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5) 형태소

언어학에서의 형태소는 최소의 의미단위를 말하며 언어의 단위로서 의미나 기능을 지니는 것이다. 복식의 경우에 형태소란 최소의 의미를 지닌 복식표현으로서 더 큰 복식표현을 구성하는 기본요소가 된다.

위의 기호학적 개념에 의해서 조선시대의 혼례복식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Ⅲ. 조선시대 혼례복식의 기호학적 구조분석

1. 혼례복식의 랑그와 빠를

바르트는 랑그를 사회제도, 의사소통을 위한 집단적 계약이라고 하였다. 이는 복식의 경우에 복식품목들과 사회제도속에서의 관습, 규범으로서의 복식을 입는 격식이고 빠를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이 실제로 입은 복식을 말한다. 문화는 그 문화의 구성원이 복식을 입고 몸단장을 할 때 지켜야 될 방법을 안내하는 어떤 원리와 도구를 제공하며 코드는 복식 품목과 장식들이 함께 입혀져야함을 내포하는 규칙을 제공한다. 의례복식은 의례적인 특별한 날 의례규정에 의해서 착용되기 때문에 일상복식과는 다른 의례적인 형식이 갖추어져야 하며 의식의 내용에 의해 제정된 복식을 착용해야 하는 바 이와 같이 의례규정은 의례복식의 코드로 복식의 품목과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한다.

랑그는 그 사회를 지배하는 사상이 반영되어 형성되는데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국교로 되어 있었으므로 모든 의례행사의 규범은 유교사상에 그 바탕을 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사상의 기초하에 모든 예속이 성립되었으며 유교의 근본이념인 삼강오륜을 실천하는 사회였다. 혼례도 조선시대의 사회질서를 지배했던 유교적 예사상의 일환이었다. 이와 같이 禮思想을 강조하는 시대적 배경 때문에 혼례복 및 의례복에 유교사상이 표현되었다.

조선시대 민가의 혼례절차를 다룬 禮書로는 四禮便覽의 기본을 이루는 朱子家禮, 國朝五禮儀 및 세종실록 17년 2월에서 “일품에서부터 서인까지의 혼례복”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다⁷⁾.

그 사회에서 제시하는 혼인제도, 복식제도는 하나의 옷을 입는 文法에 해당하는 기본구조로서 국민들이 그러한 혼례의 행사를 수용하므로써 혼례복식의 의미는 사회적인 문맥을 통해서 언어적으로 시각적으로 전달되고 문화는 개인들내에서 상징적인 질서를 제공하며 사회적

7) R. Barthes, 전제서, pp. 58-59.

8) 이순홍, 「한국전통혼인고」, (서울:학연문화사,1992), p. 107.

실체성을 유지시킨다.

사례편람에 의하면 혼례는 인생일대를 통해서 가장 경사스러운 최고의식이라고 생각하여 식의 권위와 영광을 더하기 위하여 신랑은 당상관과 같이 藍色 團領을 입고 紗帽를 쓰고 1품과 같은 品帶를 하고 黑靴를 신었다고 하였으며 착용법은 단령속에 고의 또는 중치막중 한가지를 도포밑에 입었고 청색 도포와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를 입고 그 속에는 적삼과 고의를 입었다. 신랑예복의 흉배는 당상관과 같이 쌍학의 흉배를 달았다.⁹⁾

신부의 혼례복은 다홍치마에 노랑저고리나 연두색 삼회장 저고리와 스란치마를 입으며 그 위에 圓衫이나 활옷을 입는다. 족진 머리에는 용잠이나 봉잠을 하여 큰 땀기를 뒤에 두르고 앞땀기를 늘이고 족두리나 화관 등으로 성장을 하고서 혼인예식을 올리게 하고 마치 제왕의 위치에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賀禮를 받는 형식을 취하여 이러한 복식을 입도록 하였다.

그러나 서민들의 경우는 이와 같이 士庶人의 혼례예식을 동일시하였더라도 실제로 행하는 혼례의 규모, 방법, 절차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가정에서 전래하는 관대가 없는 민가에서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보존하는 관대를 이용하였고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위에 두루마기만을 입거나 도포를 입는 경우, 혹은 가난한 경우는 바지, 저고리만을 입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개인이 실제의 혼례에서 착용한 복식을 제도적 측면의 탕그와 비교해 볼 때 뼈들의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혼례복식의 기표와 기의

복식은 의사전달을 위해 어떤 시각적 영상이 어떤 개념과 결합되어 이루어진 외형적 기호를 사용하므로서 시각영상이라는 감각적 측면과 개념이라는 비감각적, 관념적 측면이 결합되어 있는 기호이다.¹⁰⁾ 따라서 복식에서 감각적으로 지각되는 보이는 면, 즉 복식디자인인 형태, 색상, 재질, 무늬 등 물리적 실체를 복식의 기표라 볼 수 있고 감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각 디자인의 요소가 담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을 외연적 의미에서의 기의로 볼 수 있다.¹¹⁾

기의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의사소통이 된다. 혼례복식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의 혼인의 의미가 혼례복식의 기표인 형태, 문양, 색상 등의 요소에 표현되고 있으며 혼례복을 혼인의 기호로 본다면 이러한 의미들은 기의로 볼 수 있겠다. '婚姻'의 어원을 찾아보면 '婚'은 원래 '昏'으로 해가 진 후에 禮를 치룬다는 뜻이고 '姻'은 여자가 남자로 말미암아 成禮한다는 뜻이라고 하였다.¹²⁾ 혼인이란 남녀의 결합을 일정한 의식을 거쳐 사회적으로 공인받는 것으로 혼례야말로 음양의 상생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의례이다. 유학에서 성리학으로 발전되자 성리학에서는 모든 학문 및 정치, 예절, 생사, 길흉을 음양에 결부시켜 생각했고 유학이 발전하여 성리학인 역학이 대두되고 역리학은 의복의 형태, 색상 등에도 적용되었다. 복식의 사상적 측면에서는 유교, 음양오행사상, 실학사상 등이 장식적 요소인 모양, 색상 등에 나타나고 있다. 복색은 오방의 색인 청, 백, 적, 흑, 황색을 썼으며 착용방법도 음양을 따져 달리 했던 것이다.

의례복 중에서 혼례복은 통과의례중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쁜 의례에 속한 복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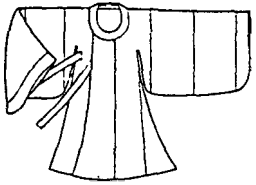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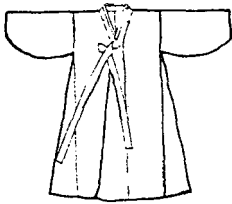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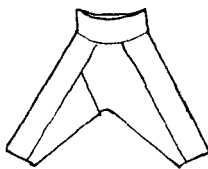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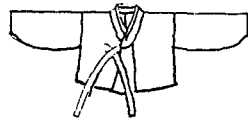
9) 유송옥, 「사례편람」, 한국의 복식, 문화재 보호협회, (1982) pp. 238-239.

10) 한명숙, 전계논문, p.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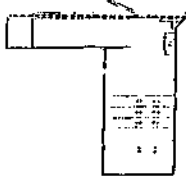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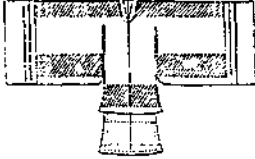


11) Kaiser, S. B. 전계서, p. 226.

12) 김용숙, 「한국의 여속사」 (서울:민음사, 1989), pp. 306-7.

<표 1> 신랑 혼례복의 기표와 기의

신랑복	기 표	외연적 의미	내연적 의미	
圓領	형 태 	문무백관의 관복, 혼례시 신랑의 예복	유교를 국교로하여 삼강오륜을 실천하고 예사상을 강조하는 조선시대의 혼례복. 유교, 성리학, 음양오행의 시대적 가치관이 반영된 행복, 기쁨, 만물의 창조, 두 기운의 융합, 장수 불변, 건강을 기원하는 혼례의 의미가 담긴 신랑의 예복	
	색 상	藍		乾. 남성
	무늬	雙 鶴		품격, 장수, 당상관
두루마기	형 태 			
	색 상	靑		陽, 남성
	무늬			
바지	형태 			
	색 상	白		
저고리	형태 			
	색 상	玉	남성, 陽.	

<표 2> 신부 혼례복의 기표와 기의

신부복	기 표	외연적 의미	내연적 의미	
華衣	형태 	공주, 응주의 대례복, 서민의 신부혼례복		
	색상	결감 - 大紅, 안감 - 藍, 소매 - 黃, 藍, 紅, 색동	여성, 남성, 이성지합, 음양화합, 상생, 類感呪述	행복, 기쁨, 만물의 창조, 두 기운의 융합
	무늬	물결, 바위, 불로초, 어 미봉, 호랑나비, 글자 - 만복지원, 이성지합	십장생	장수, 불변, 건강을 기원하는 혼례의 의미.
圓衫	형태 	공주, 응주의 대례복, 내외명부의대례복, 서민의 혼례복		
	색상	결감 - 綠, 안감 - 紅, 소매 - 색동의 빨강, 노 랑, 흰색 + 청색, 분홍, 초록, 자주 등 택 2	상생	유교를 국교로 하여 삼 강오륜을 실천하고 예 사상을 강조하는 조선 시대의 혼례복. 유교, 성리학, 음양오행의 시 대적 철학이 반영된 행 복, 기쁨, 만물의 창조 음양의 융합, 남녀합일 만복지원과 장수, 불변 을 기원하는 혼례의 의 미가 담긴 신부의 예복
저고리	형태 	삼희장		
	색상	黃 + 靑	土 + 木 음양오행	生과 成의 원리
스란치마	형태 	靑저고리 + 紅스란치마 = 木 + 火 = 상생 ; 장수, 부귀, 원만		상생, 장수, 부귀, 원만한 혼인
	색상	다홍	여성, 陰, 坤	
	무늬		紅치마 + 藍 속치마	음양화합
속치마	색상	藍	남성, 陽, 乾	

다양한 원색, 여러가지 문양, 다채로운 장신구 등은 화려하고 풍요로운 기쁨을 나타내는 행복을 상징하는 복식인 것이다. 혼례는 통과례를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례에 속하므로 복식의 기표에서도 다양한 원색, 여러 가지 문양, 다채로운 장신구 등은 이러한 행복, 기쁨, 만물의 창조, 두 기운의 융합 등 혼례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조선시대 혼례복식의 기표와 기의는 <표 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3. 혼례복식의 계열체와 통합체

한명숙¹³⁾은 복식의 구조분석에서 복식의 품목을 계열관계로, 복식을 조합하여 입는 방법을 통합관계로 논의하였다. 즉 복식이라는 커다란 계열체가 겹옷의 계열체, 속옷의 계열체, 모자 계열체, 양말계열체 등으로 나뉘어지는 것으로 통합체란 위의 계열체에서 선택한 여러 다른 기호들의 조합으로 다른 모습의 의복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복식통합체는 특정한 방식으로 기호들을 선택하여 조합하는데 이 특정한 방식이란 바로 관습적 원리를 의미한다. 조선시대 혼례복에서 계열체는 각 복식품목으로 상의류, 하의류, 외의류, 모자류, 신발류 및 장신구류로 그 구성요소의 집합체이다. 이들 계열체 중에서 각기 다른 복식계열체를 조합하여 입음으로써 조선시대의 혼례복식을 갖추게 되며 이는 통합적 구조를 구성하게 되며 이에 따라 계층, 성별 등이 구분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표 3> 조선시대 혼례복의 계열체

계열체	분류	날 말
상의 UD	겹옷(U)	옥색 저고리, 남조끼 웃저고리, 당의(원삼, 활옷)
	속 옷(u)	속적삼, 한삼(단령) 적삼, 저고리
하의 DD	겹 옷(D)	흰바지 스란치마, 대란치마
	속 옷(d)	속속곳, 바지, 단속곳, 대속
외의 OD		단령 원삼, 활옷
모자류 H		사모 족두리
신발류 FW		혹화 비단당혜
장신구류 AC		흉배, 품대 댕기, 칠보화관, 노리개, 봉 적, 관룡

통합체는 조선시대의 혼례복으로서 성별에 따라 신랑복, 신부복, 계층에 따라 왕족, 양반, 서민층으로 구분된다.

조선시대 혼례복구조식 =

$$\left[\left\{ OD \times \left(\frac{U}{D} \times \frac{u}{d} \right) \right\} + AC \cdot H \cdot FW \right]$$

여성 = {원삼, 활옷 × (저고리 / 스란치마 × 속저고리 / 속치마, 무지기)} + 어여머리, 노리개, 칠보 족드리, 비단당혜

남성 = {단령 × (조끼, 저고리 / 바지 × 속적삼)} + 대대, 흉배, 목화, 사모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시대의 혼례복식의 통합관계도 공식화가 가능하다.

4. 혼례복식의 형태소

복식의 경우에 형태소란 최소의 의미를 지닌 복식표현으로서 더 큰 복식표현을 구성하는 기본요소가 된다.

13) 한명숙, 견계서, pp. 62-63.

한명숙은 형태소를 기본형태소인 길, 깃, 소매, 길이, 폭으로 대입하였고 초분절형태소를 재료, 색, 디자인요소로 부가형태소를 의복의 디테일로 보고 있다.¹⁴⁾

혼례복에서는 무늬와 색상이 혼례복이라는 의미를 가장 많이 전달하는 요소가 됨을 알 수 있었다. 혼례복은 특히 초분절 형태소로 분류된 무늬, 색상이 강조되었다.

이를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혼례복식의 형태소

형태소	기표	기의	형태소	기표	기의	
무	연꽃문	건강, 장수, 불사, 군자	색	黑-赤	類感呪術	
	모란문	부귀		大紅		
	나비문	새로운 창조, 새로운 삶		초록-색동		生과 成의 원리-자손계승
	봉황문	德, 仁, 信, 正		노랑-연두		음기
	십장생문	장수		다홍		양기
	학	품격, 고귀, 장수		藍		二姓之合, 음양의화합, 百福
늬	山岳紋	불변	상	紅-藍		
	童子祈願紋	다남의 상징, 자손번성				
	원앙	다정한 부부, 금슬				
	祈願文字紋	백복, 이성의 합, 발원				

IV. 결 론

의례복식은 일상복과는 달리 의식의 내용에 의해 제정되어 착용해야 하며 의례에서 복식은 단순히 입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의 형식의 매개체로 이용되었으며 그 매개체에 내용을 부여하기 위한 상징적인 표시였다.

본 논문은 우리 사회 복식기호들의 코드화 및 그 코드들의 의미체계와 전달하는 메시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비언어적 의사전달의 변인으로서 복식의 추상적 개념들이 복식실체와 관련되어 기호화 되는 의미구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통혼례복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조선시대 민가의 혼례복식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F. de Saussure의 구조주의 개념의 기호학이론과 R. Barthes의 문화기호론 및 한명숙의 복식구조식을 이용하여 복식의 추상적 개념들이 복식실체와 관련되어 기호화 되는 복식의 의미체계를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의 혼례복식은 주자가례, 사례편람, 국조오례의 등에서 그 절차를 제시하였으므로 기호학의 랑그 측면이 강조된 복식유형이다.

둘째, 혼인의 의미인 남녀합일, 이성지합, 백복기원 등은 혼례복식의 기표인 형태, 무늬, 색

14) 한명숙, 전제논문.

상 등에 의해 의미화되었으며 특히 초분절형태소인 무늬와 색상이 강조되었다.

셋째, 조선시대 복식품목분류를 계열체로 보고 통합적관계로 조합하면 혼례복식이라는 의미표현을 하고 조합방법에 따라 성별로 구분되어 신랑과 신부복, 계층에 따라 왕, 양반, 서민의 혼례복기호가 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조선시대 혼례복식} = \left[\left\{ \text{OD} \times \left(\frac{\text{U}}{\text{D}} \times \frac{\text{u}}{\text{d}} \right) \right\} + \text{AC} \cdot \text{H} \cdot \text{FW} \right]$$

이러한 연구결과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복식기호들의 코드화가 가능하며 연구결과들을 비교 분석하면 복식이 기호화 되는 보편적 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 민음사, 1994.
- 김동욱,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79.
- 송명건, “우리나라 혼례복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 이순홍, “한국혼례의식에 관한 복식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석주선, 「한국복식사」 서울 : 寶晉齋, 1971.
- 이선재, “조선시대 유교사상과 의례복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김종명, 「한국의 혼속연구」 서울 : 대성문화사, 1981.
- 소두영, 「구조주의」 서울 : 민음사, 1988.
- 한명숙, “한국 복식 현상의 구조적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Eco Umberto, *A Theory of Semiotics*, 서우석 역, 「기호학 이론」 서울 : 문학과 지성, 1993.
- Roland Barthes, 「유행과 문자 의상 체계」, 한명숙 역, 서울 : 경춘사, 1994.
- 横川公子著, 服飾表現の位相, 日本 : 昭和堂, 1990.
- Bogatyrev Petr, *Costume as a sign, From the Functions of Folk costume in Moravian Solvakia*, Mouton, The Hague and Paris, 1971.
- Barthes Roland, *Mythologies*, trans by L. Annette, New York : Hill and Wang, 1983.
- Barthes Roland, *Elements of Semiology*, trans by A. Lavers and S. Colims, New York : Hill and Wang, 1980.
- Cerny Catherine A, “Semiotics; A perspective on Dress and Identity.” University of Rhode Island *ACPTC Conference Workshop Social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Dress*, 1989.
- Davis Fred,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Chicago & London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 De Saussure Ferdinande, 「일반 언어학 강의」, 오원교 역, 서울 : 형설출판사, 1973.

- Dyer, G., *Advertising as Communication*. London:Metuchen, 1982.
- Gurel Lesile M. & Beeson, Marianne S., *Dimensions of Dress and Adornment: A Book of Readings*, Kendall /Hunt Publishing Company, 1977.
- Kaiser, Susan 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 in Context.*,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1990.
- Marcia A. Morgado, "Animal Trademark Emblems on Fashion Apparel : A Semiotic Interpretation, Part II. Applied Semiotic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Volume 11, 3, Spring, 1993.